

##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에 관한 연구\*

### 라이프사이클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rigin of Record Continuum Theor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Record Lifecycle Model

김명훈(Kim, Myoung-hun)\*\*

1. 머리말
2. 1950년대 호주 기록관리의 역사적 상황
3. 라이프사이클 모델 분석
  - 1)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형성 배경 및 내용
  - 2)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의의 및 한계
4. 레코드 컨티뉴엄 태동을 위한 새로운 기록관리 사고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244).

\*\*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sjmhwdhappy@hanmail.net)

■ 투고일: 2021년 03월 03일 ■ 최종심사일: 2021년 04월 09일 ■ 최종확정일: 2021년 04월 12일

■ 기록학연구 68, 5-39,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8.005>

## 〈초록〉

본 연구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을 20세기 중반 이후 호주의 기록관리 상황 및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결부하여 분석하였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형성 배경 및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아울러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반향으로 구축된 이론체계란 점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 자체에 대한 분석 역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형성의 역사적 배경 분석을 목표로, 1950년대 호주의 독립된 공공기록관리 체제의 모색 과정 속에서 미국의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된 배경 및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어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형성 배경과 함께 의미 및 한계를 고찰하였다.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주요 내용 및 의의,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아울러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형성되었다면,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의의 및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호주의 새로운 기록생산 환경 속에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태동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이 된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 레코드 컨티뉴엄, 라이프사이클, 기록, 아카이브, 레코드키퍼**

## 〈Abstract〉

In this study, the origin of the record continuum theory was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the record management situation in Australia after the mid-20th century and record lifecycle model.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record continuum theor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its formation, and to analyze the lifecycle model itself in terms of a theoretical system built with reflections on the lifecycle model. To this end, first of all, with the aim

of analyz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the record continuum theory, the background and process that led to intensive illumination of the US lifecycle model in the process of seeking an independent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Australia in the 1950s were reviewed. Then,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lifecycle model were considered along with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lifecycle model,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it was formed. Based on this analysis, finally,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pplication of the lifecycle model in Australia's new record creation environment, as well as the factors that were the origin of the newly born record continuum theory were examined.

**Keywords : Record Continuum, Lifecycle, Record, Archive, Recordkeeping**

## 1. 머리말

레코드 컨티뉴엄(Record Continuum) 이론은 종이기록 환경에서 전자 기록 환경으로 이전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기록관리 이론 및 방법론의 토대를 제공하는 기초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컨티뉴엄(Continuum)은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가 제시한 '다원적 우주 (Multiverse)' 개념을 기반으로 형성된 용어로, 기록학 영역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분절형 기록관리체계를 지양하고, 레코드키퍼링과 아카이빙의 통합적 사고를 위해 컨티뉴엄이란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McKemmish, 2017, 129-130, 139). 1996년 호주의 업워드에 의해 정립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전략적 사고로, 기존의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 이론 및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려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McKemmish, 2001, 333).

이러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종이기록 시대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주도한 라이프사이클 모델과는 다른 속성을 지닌다. 업워드는 아카이빙과 레코드키퍼에 대한 통일적 접근을 제공하는 기록의 개념, 논리적 실체로서의 기록에 대한 초점과 함께 레코드키퍼를 업무·사회 프로세스 및 목적과 통합시키는 기록전문직의 역할로(Upward, 1996), 매키미쉬는 기록의 다원성(plurality)과 함께, 지속적·영속적 속성을 지닌 기록의 개념화, 다원적 출처(multiple provenance) 개념이란 세 가지로 상정하고 있다(McKemish, 2017). 그리고 플린은 연속적 기록관리체제, 증거 중심의 기록 획득 개념,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 간의 구분 탈피, 생산단계부터의 기록관리 강조를 제시하고 있다(Flynn, 2001).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지닌 이러한 속성들은 20세기 말 일시에 형성된 것이 아닌, 1950년대 이후 호주 기록관리 영역에서 태동된 사고들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해 체계화시킨 것이다(Upward, 2000, 121).

업워드에 의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정립된 이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소개 내지 해설 위주로 수행되어왔다. 이는 매우 난해한 형이상학적 이론들을 연역적으로 대입시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정립한 것에서 연유한 귀결로, 이론 자체가 지닌 적합성에 대한 분석 내지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Piggott, 2012, 180-185). 업워드 스스로 밝혔듯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기록 및 기록관리를 둘러싼 복합성을 구조화시킨 개념적 모델로, 모든 이론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다(Upward, 2000, 121). 즉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최근의 기록 생산 환경을 반영해 도출한 것으로, 또 다른 기록생산 환경이 도래하면 언젠가는 변화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점검하고 향후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서는 그 형성 배경 및 과정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형성 배경 및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 업워드에 의

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정립 이후, 해외 학계의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전자기록에 초점을 맞춘 업워드의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대한 소개 내지 해설 위주의 논지가 주종을 이룬다(Reed, 2005a; 2005b; McKemmish, 2001; Flynn, 2001; Cook, 2000; Upward, 2000). 레코드 컨티뉴엄의 이론적 기원을 모색한 연구성과는 두 편에 불과하다. 하나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형성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기록 개념, 출처주의 및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레코드 컨티뉴엄의 이론적 기원을 모색하고 있으며(Upward, 1994), 또 하나는 주로 1980년대 이후 호주의 레코드키핑 동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의 개발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McKemmish, 2017). 하지만 이들 연구는 레코드 컨티뉴엄의 이론적 기원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분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형성의 모태가 되는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연계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저조한 국내 학계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부재하다. 다만 국내 학계의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승억은 새롭게 도입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제도적 특성 및 의의를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호주의 레코드키핑 개념과 함께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고찰한 점에서 국내 학계의 선구적인 연구성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이승억, 2001). 원종관은 증거 및 기억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반이 된 철학적 사조 역시 상세히 고찰한 점에서 연구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원종관, 2007). 이외 노명환은 기호학 및 성리학적 관점에서의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의미 모색 과정에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을 고찰하고 있으며(노명환, 2016; 2017), 김명훈은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입각해 기록의 평가 논리 및 기록콘텐츠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김명훈, 2010;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호주 기록관리의 역사적 상황 및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결부하여 레코드 컨티뉴엄의 이론적 기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1950년대를 주목한 이유는 도서관 소속의 매뉴스크립트 수집부서로서의 역할을 탈피하고 공공기록관리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기반으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사고들이 태동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형성의 역사적 배경 분석을 목표로, 1950년대 독립된 공공기록관리 체제의 모색 과정 속에서 미국의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된 배경 및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형성 배경과 함께 의미 및 한계를 고찰하였다.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주요 내용 및 의미,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아울러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형성되었다면,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의미 및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4장에서는 호주의 새로운 기록생산 환경 속에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태동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이 된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 2. 1950년대 호주 기록관리의 역사적 상황

호주에서 공공기록관리의 출발은 1950년대 도서관 산하 매뉴스크립트 수집부서의 영향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초창기에는 공공기록이 아닌 개인기록이나 역사 매뉴스크립트 수집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당시 역사학의 사회사 연구경향과 맞물려 원주민

의 생활상 및 기타 사회사 연구주제와 관련된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1954년 미국 셀렌버그가 수행한 호주 강연에 영향을 받은 후 도서관 산하의 매뉴스크립트 부서에서 탈피하여, 공공기록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기록관리체제 구축을 모색하게 된다(McKemmish, 2017, 131).

이를 계기로 1944년 호주 국립도서관 산하의 Archives Division 설치 이후 1961년 Commonwealth Archives Office로 분리 독립하게 되며, 기존의 역사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호주 기록관리법을 근거로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이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초기에는 영국의 기록관리법 및 기록관리 방식의 영향 속에 공공기록관리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을 전 생애에 걸쳐 증거로서의 관리에 초점을 맞춘 호주의 강력한 전통이 이 시기에 형성되게 된다(McKemmish, 2017, 129-130). 아울러 미국식의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이원화된 기록관리체제를 거부하고, 켄킨슨의 기록학 이론에 기반을 둔 기록의 본질에 대한 개념 정립, 유럽 등록소체계에 기반을 둔 기록 기술체계 수립 등 레코드 컨티뉴엄 형성의 기원이 되는 근간들 역시 이 시기에 모색되게 된다(Upward, 1994, 2).

이러한 호주 공공기록관리의 시작은 방대한 조사 및 연구작업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기록관리의 후발 주자로서, 단순한 해외 제도의 수입이 아닌 호주의 기록생산 환경에 적용 가능한 기록학 이론 및 방법론 개발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호주 국립도서관 산하 Archives Division의 부서장인 맥크린은 1958년 호주의 상황에 부합하는 공공기록관리체제 수립을 위해 북미 및 유럽지역의 기록보존소들을 탐방하였다. 이는 기록을 단순히 서가에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방식을 넘어 실무적 관점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으로, 호주 나름의 레코드키퍼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화된 정보의 특성과 함께, 여기에 부합하는 레코드키퍼 프로세스를 탐구하게 된다(Upward, 1994, 1-2).

이와 함께 맥크린은 장차 호주 공공기관에서 현용기록관리의 필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호주 공공기관에서의 레코드키퍼링 활동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호주의 맥락에서 레코드키퍼링(recordkeeping)은 업무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 형태로 생성·유지시킨다는 개념으로,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의 획득 개념이 1950년대 이후 호주 공공기록관리 영역의 기반을 형성해왔다(Piggott, 1998, 346, 348). 이러한 레코드키퍼링 개념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아카이브 중심의 기록관리에 대한 반향으로 사용된 것으로, 업무적, 규정적, 역사적 목적을 위해 기록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아카이빙 프로세스 및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즉 레코드키퍼링은 거버넌스 및 설명책임을 위해, 기억과 망각을 위해, 정체성 형성을 위해 그리고 정보 제공을 위해 시간 및 공간을 가로질러 수행되는 행위로, 기록관리와 아카이브관리 모두를 포함하며, 아울러 조직은 물론 개인, 가족, 단체들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울러 레코드키퍼링 대상은 문자화된 기록뿐만 아니라 구술, 문학작품, 자연광경, 춤, 예술작품, 건축물, 유물 등 관계없이, 개인적 집단적 삶에 대한 증거이자 기억인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대한 흔적(traces)을 제공하는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McKemish, 2005, 1).

1950년대 이후 호주의 레코드키퍼링 사고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양분화된 기록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부터 출발한다(Upward, 2000, 126), 1940년대 호주 국립도서관 산하의 Archives Division 설립 당시에는 영국 식민지 전통을 계승하여 영국식 기록관리제도에 입각한 매뉴스트리프트 수집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며, 공공기록관리에 대해서는 기반이 전무한 상태였다. 하지만 1950년대 들어 호주 공공기록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기록관리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움직임 속에, 당시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한 것은 바로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체제였다. 공공기록관리 기반이

부재한 채 대량의 기록관리에 직면하게 된 호주의 입장에서 고문서 중심의 유럽식 기록관리제도는 부합하지 않았다(Schellenberg, 2002, i). 1954년 미국 쉘렌버그의 호주 강연 후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미국식 기록관리제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상황에서(Cunningham, 2002, 171, 174), 당시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미국식 기록관리 체제는 전통적인 유럽의 기록관리체제 및 방식을 탈피하는 파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김익한, 2003, 216).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제도는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 기록관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종이기록 시대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주도하게 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 전시기록의 증가, 전후 국가안정 및 정부 규모의 확대, 사무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록 생산량의 증가 상황 속에,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체제는 대량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Brothman, 2001, 53).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여 도서관으로부터 독립된 공공기록관리 체제 수립을 모색하던 호주에서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미국식 기록관리체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며, 호주의 상황에 비추어 비판적 분석을 통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사고를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의 출발점은 현용기록관리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춘 연속적인 공공기록관리 체제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영국의 오랜 식민지로서 영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영향 속에 공공기록관리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1950년대 이후 호주의 기록생산 환경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1954년 쉘렌버그의 호주 강연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한 것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미국식 기록관리 제도였다(McKemmish, 2017, 130-131). 하지만 라이프사이클 모델 역시 원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1950년대 호주의 기록생산 환경을 반영한 귀결이다.

호주는 19세기 후반부터 영국의 식민지로서 등록소 전통에 기반을 둔 문서처리 방식이 정착되어 왔는데, 이는 자원의 반출 및 원주민 통치 등 영국의 식민지배를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였다(Stoler, 2002, 92-98). 1940년대까지 이러한 등록소 전통에 기반을 둔 문서처리 방식은 종이기록의 양 및 관리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1950년대 들어 정부 규모의 확대 및 미국의 사무기술 도입 등은 이를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McKemish, 2017, 127). 아울러 1950년대 호주 정부 조직의 빈번한 변화 상황으로 인해 기록에 대한 초기 통제와 필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현용단계에서의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에 초점을 맞춘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기록관리에 초점을 맞춘 호주의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 생성되는 기록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없이는 아카이브관리 역시 무의미하다는 입장에서이다(Maclean, 1959, 388-389). 바로 여기서 현용단계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의 획득이 비현용단계에서의 양질의 아카이브를 위한 전제가 된다는 논리가 형성되며, 따라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현용기록관리와 비현용기록관리 간의 엄격한 구분을 지양한 현용단계부터의 연속적인 기록관리체제를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1950년대 호주의 공공기록관리체제 모색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처럼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가 아닌, 소위 ‘포괄적 공공기록관리 행정(Comprehensive Public Records Administration)’이라는 모토 아래 양자 간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관리와 기록관리 간의 구분 없는 통합된 형태로 기록관리 조직을 편성하고, 아울러 각 기관별로 기록관리전문가를 채용해 단순히 종이기록을 담당하는 서무 역할이 아닌, 기관 내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Maclean, 1959, 390).

이상과 같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반이 된 1950년대 호주의 새로운 사고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시발점을 둔다. 그림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종이기록 시대 기록관리 이론 및 방법론의 근간을 형성했던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형성 배경 및 주요 내용과 함께 그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 3. 라이프사이클 모델 분석

#### 1)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형성 배경 및 내용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기록을 생물체에 비유하여 가치의 변화 및 이에 따른 관리 주체를 차별화시킨 하나의 방법론으로, 기록이 지닌 고유 특성에 기반하여 개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니며, 이러한 가치의 변화에 따라 현용, 준현용, 비현용이란 세 개의 단계 구분을 통해 기록관리 주체 및 관리방식을 차별화한 방법론이다. 이러한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현대 기록생산 환경에서 급증하는 기록의 양에 직면해 모든 것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보존해야 할지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출발점을 둔다(Cook, 1997, 26; Dingwall, 2010, 141).

기실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하나의 이론이라기 보다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방법론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이론이 사물이나 현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일반화한 체계로 정의된다면,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심도 있는 연구 내지 분석작업을 통해 개발된 것이 아닌 1930~40년대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고안된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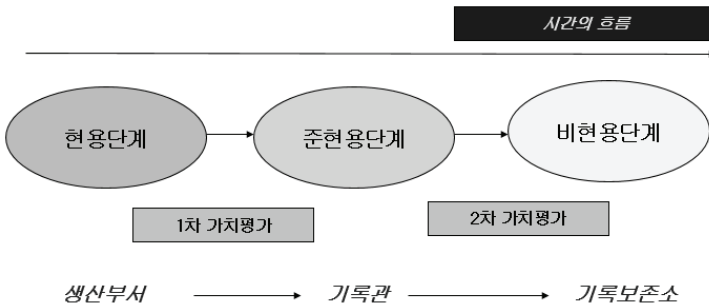
이 강하기 때문이다(Dingwall, 2010, 140). 따라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고안되게 된 미국의 역사적 상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브룩스(Philip Brooks)가 체계화시킨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1934년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에서 급증하는 기록의 처리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Yusof & Robert, 2000, 135). 19세기까지 유럽에 비해 미약한 기록관리 전통을 지닌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부를 축적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록생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기록의 생산량이 예전이 비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배영수, 1997, 1-6). 아울러 1930년대 초반 경제 대공황 이후 뉴딜정책에 따른 권력 집중의 시류 속에 1934년 미국에서 최초로 국립기록보존소가 설립되면서, 국립기록보존소장에게 연방기관들의 기록을 감시할 권한과 함께, 평가를 통해 영구적 보존 가치가 없는 기록 목록을 의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방대한 양의 기록에 직면하여 모두 보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Holmes, 1949, 344-346). 이에 브룩스는 대량의 기록 처리 및 영구보존 대상 선별 절차의 기본 논리를 제공하는, 라이프사이클의 전신인 'Life History of Records'란 논리를 개발하게 되며, 국립기록보존소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기록의 생산부터 최종 처분 내지 이관을 관할하는 통합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된다(Dollar, 1993. 39-40).

여기서 브룩스는 젠킨슨이 말한 아키비스트의 사명인 '신성한 증거의 수호자' 관념을 비판하게 된다. 젠킨슨은 의미 없는 일부 기록을 폐기한 나머지 기록 전체를 아카이브로 정의하며, 이러한 아카이브를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함께, 불법적인 접근·변조 등으로부터의 도덕적 보호를 아키비스트의 사명으로 상정하였다(Jenkinson, 2003, 8-9, 41-42, 74-75). 하지만 브룩스는 미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젠킨슨의

이러한 입장에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우선 기록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관리할 수 없고, 결국 아키비스트에 도달하기 전 중요 기록이 유실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이다(Brooks, 1940, 226). 아울러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생성되는 기록의 양을 감안할 때 또한 모든 기록을 보존할 인적 물적 자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아키비스트는 비용과의 함수관계 속에 보존을 위한 기록의 선별에 관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서이다(Brooks, 1940, 222).

〈그림 1〉 라이프사이클과 결합된 기록의 가치평가 체제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기록의 가치평가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Yusof & Robert, 2000, 135). 이에 대량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특정 가치를 지닌 일부 기록을 선별하기 위해 기록의 내용에 기반을 둔 가치 기준이 모색되었고, 라이프사이클의 단계 구분과 연동하여 미국의 기록 평가체제가 정립된다. 쉘렌버그가 체계화시킨 라이프사이클과 결합된 기록의 가치평가 체제는 위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단계의 평가가 수행된다. 즉 기록의 현용이 종료된 기록을 대상으로 생산목적 본래의 가치를 의미하는 1차적 가치(primary value)를 기준으로 1차 평가가 수행되며, 준현용이 끝나게

되면 생산목적 본래의 가치가 소멸된 후 새롭게 생성된 역사, 연구 등의 방면에 이용되는 2차적 가치(secondary value)를 기본으로 2차 평가가 수행된다(Schellenberg, 2005, 30-31).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기반을 둔 이러한 평가체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하나는 행정 효율화의 목적이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기록이 생성되는 상황에서 업무적 활용이 끝난 기록의 즉각적인 파기를 통한 공간 및 관리 비용의 최소화 추구를 위해서이다(Schellenberg, 2002, 43). 또 다른 하나는 영구보존 대상의 선별 목적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의 가치는 변화하며 비현용단계에 접어들어 생산목적과는 상관없는 기록의 가치가 새롭게 생성된다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논리를 기반으로, 역사적 내지 연구적 목적 때문에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에 영구보존할 기록을 선별하기 위해서이다(Schellenberg, 2005, 30-31).

이러한 두 가지 평가 목적과 연동하여 기록의 개념 역시 이원적으로 구분하게 된다. 1차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레코드(Record)’로, 2차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아카이브(Archive)’로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레코드는 물리적 형태나 특성에 상관없이 공적이나 사적인 공식적 활동과정에서 생산·접수되어 활동에 대한 증거 내지 그 안에 수록된 내용상의 정보적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정의했다면, 아카이브는 이러한 레코드 가운데 연구 내지 참고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선별된 대상으로 정의하였다(Schellenberg, 2002, 18).

그렇다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기록 평가체제에서는 수많은 레코드 가운데 특정 원소들로 이루어진 아카이브란 부분집합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 된다. 미국식의 이러한 가치평가 방식은 영구보존 대상인 아카이브를 선별한 후 대량의 레코드를 처리하려는 당시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의 필요에 의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이다(Evans, 1967, 46). 라이프사이클 모델 및 이와 연동된 평가체제의 발명 주체는

브룩스 및 쉘렌버그 등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의 공무원이었으며, 대량의 기록을 처리한 후 소위 2차적 가치를 지닌 소수의 기록을 선별해 영구보존시키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핵심은 1) 평가라 할 수 있으며, 평가의 핵심은 소수의 2) 아카이브 선별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주안점을 둔 부분은 현용단계의 기록관리가 아닌, 3) 비현용단계의 아카이브관리라 할 수 있다.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근거를 형성하는 이러한 사고는 현용기록관리에 대한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쉘렌버그는 현용단계에서의 기록관리는 현재의 업무에 필요로 하는 동안 공간 및 관리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수행하고, 업무 필요가 끝나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현용기록관리의 본질적 요소로 파악한다. 아울러 역사 내지 연구상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이들 기록이 시의적절하게 폐기된다면 아카이브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Schellenberg, 2002, 43-45). 이를 감안한다면 현용기록관리는 아카이브관리를 준비하기 위한 단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으며(Hammitt, 1965, 219), 수많은 기록 가운데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해 보존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으로 간주된다(Gracy II, 1987, 3).

이상과 같이 20세기 초반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며 형성된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기록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발상으로, 대량의 기록 처리를 위한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3단계 기록관리체제의 기반을 구축한다. 당시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의 입장이 투영된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현용기록관리 영역과 아카이브관리 영역 간의 엄격한 경계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대량의 기록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적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Atherton, 1985-1986, 46). 20세기 중반 이후 국가의 안정 및 규모 확대, 기록생산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록 생산량의 증가 상황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

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 다음 절에서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의의와 함께 그 한계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 2)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의의 및 한계

대량의 기록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된 이러한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기록의 평가에 기반을 둔 비현용단계의 아카이브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전 세계 기록관리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종이기록 시대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주도한다. 이것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실무적 방안으로서의 강점 내지 유효성에 기인한 귀결로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강점은 기록화된 정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해 준다는데 있다(Atherton, 1985~1986, 44).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이와 맞물린 체계적인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주며, 아울러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제시하는 현용, 준현용 및 비현용이란 3단계 기록관리체제는 현대 조직이 대량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준다(Brothman, 2001, 53).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식되는 현용기록관리와 아카이브관리 간의 이분법적 구분은 역으로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강점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대량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두 영역 간 역할을 명확화시키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용기록관리를 담당하는 기록관리자와 아카이브관리에 초점을 맞춘 아키비스트 간의 업무의 분화는, 행정적 업무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기록관리 업무와,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아카이브관리 양자 간의 전문성 개발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Brothman, 2001, 53-54).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제시하는 가치의 순환(cycle) 개념은 기록의 활용성 역시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조직 내 상당수의 업무는 순환적으로 반복되며, 이러한 업무에 기록 형태로 저장된 정보들은 필요시마다 재사용되는 가치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조직에서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전의 기록을 검색해 재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의 재창출 내지 재탄생 개념을 제공하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기록의 활용 가치를 제고시켜주게 된다. 즉 라이프 타임(life time)이 기록의 생성에서 최종 폐기에 이르는 단선형의 개념으로, 업무적 법적 보유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록을 폐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개념은 기록의 가치를 재창출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입장처럼 비현용단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만이 아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원로서의 가치를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Yusof & Robert, 2000, 135).

21세기 전자기록 환경에서도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동안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전자기록 시대를 맞아 더이상 통용될 수 없는 종이시대의 방법론으로 평가 절하되어왔다. 그러나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종이시대의 폐기된 산물이 아닌, 전자기록 환경에서도 여전히 활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조명받고 있다. 우선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기록관리체제 수립을 위한 골격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는 현용-준현용-비현용이란 단계와 연동한 3단계 기록관리체제를 제시하는데, 21세기 전자기록 환경에서도 대부분 국가의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3단계 기록관리체제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이러한 논리에서 본다면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종이기록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매체의 관리가 아닌, 3단계 기록관리체제와 연동한 기록의 법적 관찰권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전자기록 환경에서도 여전히 적용 가능하게 된다(Bailey, 1989~1990, 183-184).

다음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실무적 적용성과 관련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의 가치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계의 영원한 진리이듯이, 전자기록도 분명 라이프사이클을 지닌다. 하지만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개발되었지만 이론적으로 지나치게 난해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달리 현장 실무에 구체적으로 작용할 정도로 명료한 방법론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McEachreon, 2012, 10).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전자기록 환경에서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임을 염두에 둘 때,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TheDataVault, 2011).

대표적으로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이용한 전략 중 하나가 리텐션 스케줄이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매일매일의 업무과정에서 수많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엄청난 양의 기록정보가 생성되는 상황에서, 기록의 라이프사이클에 입각한 리텐션 스케줄은 기록의 생성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수많은 전자기록 가운데 기록관리 단계별로 불필요한 것은 폐기하고 중요한 것은 보존하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제공하는 전략적 개념은 전자기록 시대에도 발전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Hoke, 2011, 29).

이와 유사하게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기원이 된 대량의 기록에 대한 처분 논리 역시 전자기록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록의 생산량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종이 없는 사무실이 현실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전자기록의 생산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종이기록 역시 중복적으로 대량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연동하여 생산된 모든 기록의 관리에 소요되

는 업무 및 비용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록을 획득해 관리하고 불필요한 대상을 적시에 처리하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근거한 기록의 처분 방안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Hoke, 2011, 28-32). 다만 전자 기록 환경에서는 종래와 같은 아키비스트 중심이 아닌,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대량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McEachreon, 2012, 11).

이와 같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의미 내지 강점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본질적인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먼저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대량의 기록 처리에 직면한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의 입장이 여실히 반영된 산물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곧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태생적으로 기록을 생산 본래의 가치로서 보다는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 위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의 사명은 대량의 기록 가운데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를 지닌 소수의 기록만을 평가해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 사명으로, 따라서 기록의 의미를 역사 내지 연구적 목적을 위한 활용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 이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정립한 브룩스의 견해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즉 브룩스는 대량의 기록에 직면하여 기록의 처리와 관련된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의 공헌을 연구적 관점에서 기록의 가치를 판단한 것으로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기록을 이용시킨다는 기관의 사명을 모토로 역사학자로 구성된 아키비스트를 통해 역사적 연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선별해 보존시키는 것을 기록관리의 핵심적 역할로 상정한다(Brooks, 1948, 314-315).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기록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평가로 설정되며, 기록관리의 목표 역시 현용기록관리 영역이 아닌 아카이브관리 영역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당시 미국적 상황에서는 수없이 생성되는 기록에 직면하여 2~3%의 역사적 연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의 선별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였으며, 수많은 레코드 가운데 선별된 아카이브

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이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방대한 양의 불필요한 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에서,<sup>1)</sup> 라이프사이클에 입각한 국립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초점은 불필요한 기록의 폐기를 통한 비용 절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용기록관리는 기록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제적 절감을 위한 것으로, 기록학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 경영학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카이브 중심의 기록관리에 대한 사고는 결국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본질적인 한계로 비판받는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로 이어진다. 기실 대량의 기록 처리에 직면하여 당시 미국에서 고안된 방안 중 하나는 바로 ‘레코드센터’의 도입이다. 업무상의 현용이 종료된 기록을 레코드센터라는 저장시설로 이관해 한동안 관리함으로써 사무 공간의 확보 및 관리 비용 축소를 이루기 위해서였다(Angel, 1968, 5-12). 이와 한편으로 업무부서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기록 통제와 함께 기록 생산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다 다양한 기록유형의 관리 등을 위해 현용기록관리를 담당하는 ‘기록관리자(record manager)’ 그룹이 형성된다(Evans, 1967, 47-48). 이를 계기로 당시 미국에서는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해왔던 기존의 아키비스트와, 업무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량의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기록관리자 간의 역할이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Dingwall, 2010, 142), 아키비스트는 역사가 및 기타 이용자들의 필요를 담당하고 기록관리자는 업무부서의 기록관리 효율성을 담당하는 역할로 고착화된다(Brown, 1971, 21).

---

1) 1947년 후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연방정부 운영상의 경제적 업무적 효율성 추진을 위해 설치된 일명 후버위원회(Commission on the 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Department of the Government)의 보고에 따르면, 대량의 불필요한 중이기록 처리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대략 4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Krauskopf, 1958, 391).

이는 결국 현용기록관리 영역과 아카이브관리 영역이 엄격히 분리된 기록관리체제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는 기록관리의 궁극적 목적을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의 평가 및 보존에 둔 점을 감안할 때, 현용기록관리는 아카이브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브룩스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라이프사이클 전 기간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Brooks, 1940, 226), 현실적으로 아키비스트는 현용기록관리를 아카이브관리를 위한 예비단계 정도로 인식하였다. 즉 현용기록관리는 사무공간의 절감 및 관리비용의 축소를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양질의 아카이브 선별의 전제가 되는 대량의 기록 처리를 담당하는 수준에서 인식되었다(Schellenberg, 2002, 30-31, 132-139).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간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자 간의 협력이 부재한 이원화된 기록관리체제를 형성하게 된다(Atherton, 1985~1986, 44).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며 형성된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기록관리 관점에서 다양한 의의 및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방대한 양의 기록에 직면한 현대 기록생산 환경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록관리체제 및 방식을 제공한 점에서는 당시 유럽식의 전통적 방식을 탈피한 혁신적인 모델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 중심의 기록관리 사고 및 여기서 연유한 이원화된 기록관리체제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논리 및 방식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기록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귀결이라 볼 수 있다. 1950년대 호주에서는 자국의 기록생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한계를 분석하며, 스스로의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의 기원

이 되는 호주의 새로운 기록관리 사고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 4. 레코드 컨티뉴엄 태동을 위한 새로운 기록관리 사고

1950년대 호주에서는 도서관 소속 매뉴스크립트 수집부서로서의 역할을 탈피하고 공공기록관리를 위한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레코드키핑을 위한 새로운 사고가 모색된다. 방대한 조사 및 연구작업과 함께 시작된 호주의 레코드키핑 사고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라이프사이클 모델과는 다른 레코드 컨티뉴엄의 특성은 연속성을 지닌 통일된 기록관리체제, 증거 중심의 기록 획득 개념,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 간의 엄격한 역할 구분 탈피, 생산단계부터의 기록관리 강조 등을 들 수 있다(Flynn, 2001, 83-84). 이러한 레코드 컨티뉴엄 사고는 1950년대 호주의 새로운 기록생산 환경 속에서, 미국적 방식의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원론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한계를 분석하며 서서히 태동하게 된다.

그 첫 번째 움직임은 호주의 ‘기록감축 캠페인(Records Reduction Campaign)’에서 나타난다. 맥크린은 호주 레코드 컨티뉴엄 사고의 기원으로 1950년대에 시작된 기록감축 캠페인을 상정한다(Flynn, 2001, 85-86). 기록감축 캠페인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생성된 대량의 전시기록을 조사, 평가, 처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캠페인을 기반으로 맥크린은 영국을 비롯해 문화적 목적을 강조하는 유럽형 기록관리 행정으로부터 탈피하여, ‘기록관리 행정의 컨티뉴엄(Continuum of Records Administration)’이라 지칭되는 호주의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tuckey, 1994, 40). 즉 그동안 호주에서의 기록관리는 문화적 목적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업무 효율화를 위한 행정적 목적 역시 지향하는 호주

의 혁신적인 사고가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기록감축 캠페인을 레코드 컨티뉴엄 사고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업워드는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제시한 차원 2, 차원 3 및 차원 4의 기원을 찾는다(Upward, 1994, 10). 대량의 전시기록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필요한 대상을 획득하고 조직화시킨 다음, 평가를 통해 중요 기록을 선별해 사회적 활용을 모색한다는 점에 서 있다.

두 번째 움직임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다. 이는 다시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록관리의 목표와 관련된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록관리를 지향하는 위와 같은 사고에서 볼 때, 역사자료 선별자로서의 기록전문가 역할 강조는 호주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 현용기록관리에 관심이 없는 기록전문가는 마치 한팔이 없이 링 위에 선 권투선수와 동일하다는 이유에서이다(Piggott, 1998, 347-348). 이에 맥크린은 레코드키퍼 체제 개발에 앞서 기록전문가를 각 공공기관에서 현용기록관리 담당하는 자, 기록관리기관에서 현용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자와 함께, 기록관리기관에서 역사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자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Maclean, 1959, 389). 아울러 역사기록관리 담당자로서의 기록전문가 역할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데, 비현용단계에서 역사적 가치 평가를 담당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 강조는 미국과 같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입각한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를 고착화시키기 때문이다(Maclean, 1959, 388). 이는 1950년대 중반 이후 호주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기록은 이전의 기록과 형태적으로도 양 및 질적으로도 상이하며, 아울러 증거로서의 기록관리를 중시하는 호주의 상황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활용될 수 있는 현재 생성되는 기록의 관리가 역사자료의 관리에 우선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 상에서 또 다른 하나는 생산부터 최종 보존에 이르는 연속적으로 연계된 기록관리체제 수립과 관련된다. 맥크린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제시한 이분법적인 기록관리체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생산부터 최종 보존에 이르는 연속적으로 연계된 기록관리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Stuckey, 1994, 40). 대량의 기록 처리를 위해 고안된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는 수많은 기록을 처분하고 역사적 연구적 가치를 지닌 소수의 기록만을 선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1950년대 이후 호주에서는 업무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획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레코드키피ng 개념이 자리해왔다(Piggott, 1998, 348).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 공공기관의 활동을 기록과 연계시킴으로써 생성 단계부터 정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문서화시켜 유지할 수 있는 일관된 기록관리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하게 된다(Upward, 1994, 8). 이러한 사고는 당시 유럽 및 북미권 기록학 이론을 주도하였던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호주의 상황에 맞게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움직임으로, 무엇보다 아카이브관리와 기록관리 사이의 양분된 단절적 체제를 지양하고 연속적인 기록관리체제를 모색하려는 동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기록관리체제 모색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입각한 양분화된 기록 개념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이어진다. 수많은 기록물 가운데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소수의 기록을 아카이브로 정의했던 미국식 사고를 거부하고, 1950년대 호주 국립도서관 산하의 Archives Division에서는 젠킨슨의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을 수용한다(Upward, 1994, 3). 젠킨슨은 아카이브의 본질을 가치의 중립성에서 찾고 있는데, 불필요한 사본이나 일회성 기록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행위의 증거로 파악하며, 행정 과정에서 생산되었거나 행정상의 책임자 내지 그 후임자들의 이용 목적으로 이들의 보호(custody) 하에 보존된 대상을 아카이브로 정의하였다(Jenkinson, 2003, 8-9). 이는 곧 인위적인 가치 기준을 근거로 기록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사고를 탈피하여 지속적인 관리조치가 부여되면 소위 '신성한 증거'로서의 아카이브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여기서 증거로서의 기록을 강조하는 레코드 컨티뉴엄의 사고가 도출된다(Upward, 1994, 3-4). 아울러 젠킨슨이 언급했던 신성한 증거의 수호를 위한 도덕적 물리적 보호 개념은, 생산 이후 기록이 지닌 증거성의 보호를 위해 연속적이면서도 일관된 레코드키퍼링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레코드 컨티뉴엄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젠킨슨이 언급했던 기록의 속성 가운데 기록은 자연스럽게 축적된다는 자연성에 대한 개념은 거부한다. 즉 수없이 생산되는 행위의 결과들 가운데, 행위에 대한 증거인 기록으로 관리, 보존할 만한 것을 의식적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1950년대 이후 호주의 기록 생산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체제의 안정 및 정부 규모의 확대, 기록생산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공공기록의 양 및 복잡성의 증가 상황에서, 맥크린은 기록은 자연스럽게 축적된다는 젠킨슨의 사고를 탈피하여 의식적으로 기록을 획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업무방식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Maclean, 1956, 2-6).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을 업무와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록을 획득한다는 레코드 컨티뉴엄의 사고를 찾을 수 있다.

기록의 논리적 체계를 구축하는 분류에서도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입각한 사고를 거부한다. 1950년대 호주 국립도서관 산하의 Archives Division에서는 현대 기록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분류 절차는 다각적 방식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한다(Upward, 1994, 6-7). 우선 맥크린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쉘렌버그의 분류 개념을 비판한다. 이는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보다는 생산목적과는 다른 역사 내지 연구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Maclean, 1959, 401).

이에 맥크린은 기록의 분류를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1950년대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의 획득 개념이 호주 공공 기록관리 영역의 기반을 형성한 것과 보조를 맞추어, 이러한 증거를 획

득하기 위해서는 업무활동과 기록을 사전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이다. 이에 대한 논리로 맥크린은 먼저 젠킨슨의 아카이브 개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즉 젠킨슨은 문서가 아카이브로 전환되는 것을 끊임없는 관리이력으로 파악하였지만, 1950년대 당시 호주에서 생성되는 기록이 지닌 복잡성은 이러한 젠킨슨의 견해가 원론적으로 적용되기 힘든 특성을 지닌다는 이유에서이다. 조직 및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록이 생산되는 처리행위 역시 복잡성을 지니게 되며, 따라서 예전처럼 기록을 사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업무의 복잡성에서 연유하는 기록의 맥락을 소실할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맥크린은 기록의 분류를 업무활동과 기록을 사전적으로 연계시키는, 모든 레코드키핑 프로세스를 가로지르는 개념으로 상정한다(Maclean, 1959, 401-403).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반이 된 이상과 같은 1950년대 호주의 사고는 종국적으로 아키비스트의 역할 내지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제시한 역사사료 선별자로서의 아키비스트 역할을 거부하고, 맥크린은 1950년대 호주의 레코드키핑 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레코드키핑 체제의 방향을 찾는 차원에서 아키비스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우선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에 관한 것이다.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입각한 미국식 사고에서는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아카이브의 평가가 아키비스트의 사명이자, 현용기록관리보다는 아카이브관리 영역이 아키비스트의 전문 영역으로 인식되어왔다(Schellenberg, 2002, 132-139). 이에 반해 맥크린은 레코드키핑 이론 및 방식에 대한 기본 지식을 기반으로, 조직에서 생성된 증거로서의 기록 확보를 위해 의사결정 및 영향을 미치는 자로 아키비스트를 정의한다(Maclean, 1959, 416-417). 이는 곧 기록의 생산단계부터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을 위해 아키비스트가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생산단계부터 일원화된 레코드키핑 체제를 지향하는 호주의 사고에서는 기존의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같이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간의 엄격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아키비스트의 전문적인 지식 범주와 관련된다. 아키비스트가 생산단계부터 기록의 획득에 관여해야 한다면, 기존의 아키비스트와는 다른 교육 및 훈련을 요구받게 된다. 대량의 기록 가운데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소수의 기록을 평가하여 보존하는 것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상정한 아키비스트의 핵심 역할인 관계상, 미국적 사고에서는 특히 역사학 훈련을 강조하였다(Schellenberg, 2002, 35-36). 하지만 생산단계부터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을 아키비스트의 역할로 상정한 호주의 사고에서는 레코드키퍼에 대한 이론 및 실무방식과 함께, 기록이 생성되는 매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아키비스트가 지녀야 할 지식 범주로 제시한다(Maclean, 1959, 417).

세 번째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간의 관계를 재조명한다. 맥클린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서 상정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간의 엄격한 구분을 거부하고, 양자는 명확한 역할 차이가 없는 단일체로 파악한다(Maclean, 1959, 417). 이러한 사고는 포스너(Ernst Posner)의 주장과 동일선 상에 놓여 있다. 모든 공공기록이 종국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한 국가 단위의 풍(Fond)을 형성한다면, 각자의 기록을 생산·관리하는 각 공공기관에서는 생산단계부터 기록을 어떻게 조직화시키고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감안할 때 아키비스트는 기존과 같은 역사사료의 선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 생성 및 관리에 대해 관여하는 국가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Posner, 1940, 171-172).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아키비스트는 영구기록관리기관에 근무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현용기록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성향 내지 근무 상황에 따른 활동영역이 다른 것일 뿐 양자는 모두 동일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어디에서 근무하건 동일한 전문가로서 생산단계부터 증거로서

의 기록을 획득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Maclean, 1959, 417-418).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호주에서는 새로운 기록생산 환경에 부합하는 공공기록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적 방식의 라이프사이클 모델을 원론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한계를 분석하며 레코드 컨티뉴엄의 기원이 되는 사고를 정립하였다.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역사적 가치 중심의 이원화된 기록관리체제를 비판하며 업무 효율화를 위한 행정적 목적 중심의 연속적 기록관리체제를 지향하였으며, 레코드와 아카이브라는 양분화된 기록 개념을 거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의 기록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기록의 획득 및 사전적 분류 논리를 도출함과 아울러, 역사사료 평가자로서의 아키비스트 개념을 거부하고 기록의 생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기록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역시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한 해외 제도의 도입이 아닌, 호주의 기록생산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조사 및 분석의 결과로, 이후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의 개발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주게 된다.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을 20세기 중반 이후 호주의 기록관리 상황 및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결부하여 분석하였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형성 배경 및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아울러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반향으로 구축된 이론체계란 점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 자체에 대한 분석 역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기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호주에서는 1950년대 도서관 산하 매뉴스크립트 수집 부서로서의 역할을 탈피하고 독립된 공공기록관리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기반을 둔 미국식 기록관리체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며, 당시 호주의 상황에 비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사고를 정립하게 된다. 그 핵심은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에 초점을 맞춘 양분화된 기록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현용단계부터의 연속적인 기록관리체제를 지향하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반이 된 호주의 새로운 사고를 도출하게 된다.

이처럼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반이 된 호주의 사고가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형성되었다면, 라이프사이클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며 형성된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방대한 양의 기록 통제를 위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의 관리 및 보존 책임을 지닌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의 입장이 투영되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핵심은 수많은 기록 처리를 위한 평가라 할 수 있으며, 평가의 핵심은 역사 내지 연구적 가치를 지닌 소수의 아카이브 선별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주안점을 둔 부분은 현용단계의 기록관리가 아닌 비현용단계의 아카이브관리가 되며, 이를 통해 이원화된 기록관리 체제가 고착되게 된다. 이러한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대량의 기록에 직면한 현대 기록생산 환경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록관리체제 및 방식을 제공한 점에서는 당시 유럽식의 전통적 방식을 탈피한 혁신적인 모델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 중심의 기록관리 사고 및 여기서 연유한 이원화된 기록관리체제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논리 및 방식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기록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호주에서는 1950년대 공공기록관리 체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기록생산 환경 속에 원문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라이프사이클 모델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이 된 새로운 사고들이 태동된다. 라이프사이클 모델이 지닌 역사적 가치 중심의 이원화된 기록관리체제를 비판하며 업무 효율화를 위한 행정적 목적 중심의 연속적 기록관리체제를 지향하였으며, 레코드와 아카이브라는 양분화된 기록 개념을 거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의 기록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기록의 획득 및 사전적 분류 논리를 도출함과 아울러, 역사사료 평가자로서의 아키비스트 개념을 거부하고 기록의 생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기록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역시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한 해외 제도의 도입이 아닌, 호주의 기록생산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조사 및 분석의 결과로, 이후 레코드 컨티뉴엄 모델의 개발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호주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토대가 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고가 정립되게 된다. 이는 다원적 출처(multiple provenance) 개념으로, 기존의 출처주의 논리로는 확보하기 힘든 기록이 지닌 다양한 맥락 및 다원적인 의미를 모색하기 위함이다(McKemish, 2017, 147). 이를 위해 개발된 방안이 스코트가 창안한 시리즈시스템(Series System)으로, 정부조직의 다변화 상황에서 레코드그룹 개념을 포기하고 기록의 분류 및 기술의 중심축으로 시리즈를 삼는 것이다. 즉 시리즈를 기록 생산자와 연계시키고 양자를 각기 분리하여 기술함으로써, 다수의 생산자 및 연관 시리즈를 상호 연계시켜 다출처 문제에 대응한 것이다(Wagland & Kelly 1994, 141; Vincent, 1976~1977, 9-12; Scott, 1966, 493). 이러한 시리즈시스템은 복잡화된 기록생산 환경에서 기록이 지닌 다원적인 맥락 확보 및 이를 통한 기록이 지닌 다원적인 의미 모색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서 제시한

다원적 출처 개념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Upward, 1994, 5).

이후 호주에서의 레코드 컨티뉴엄에 대한 사고는 한동안 휴지기 상태에 접어들다가, 1980년대 말에 다시 대두되게 된다(Upward, 1994, 9). 1980년대 후반들어 증거 기반 레코드키퍼링 및 컨티뉴엄 사고가 부활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1980년대 정부의 각종 부패 스캔들에 따른 기록을 통한 설명책임성을 강조하는 경향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자기록의 등장으로 인한 증거로서의 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그것이다(McKemish, 2017, 133). 이러한 경향과 보조를 맞추어 호주에서는 새로운 전자기록 환경에서 전자기록의 속성에 부합하는 기록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하였고, 한편으로는 호주 모나쉬(Monash)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록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참여한 연구그룹이 형성되어 전자기록에 초점을 맞춘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게 된다(McKemish, 2017, 134-140).

본 연구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의 기원을 20세기 중반 이후 호주의 기록관리 상황 및 라이프사이클 모델과 연계해 고찰한 점에서, 전자기록과 결부시켜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1990년대 전자기록 환경에 대한 대응하며 이론적 체계를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이 지닌 함의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의 특성과 연계시킨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약속하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명훈 (2010). 레코드 컨티뉴엄과 평가, 그리고 기록콘텐츠: 기록콘텐츠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정보관리연구, 41(3).
- 김명훈 (2017).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 종교기관 기록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2.

- 김익한 (2002). EDMS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기록학연구, 5.
- 김익한 (2003). DIRKS-Manual의 실용적 적용. 기록학연구, 8.
- 노명환 (2016). 기호학 및 '성리학적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기록과 기록관리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의 이해: 레코드 컨티뉴엄의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문화연구, 57.
- 노명환 (2017). '개념적 구성물로서의 기록'의 관점에서 보는 조선시대 성리학 세계관과 기록·기록관리. 기록학연구, 51.
- 배영수 (1997). 역사와 정치의 교차로: 미국 문서관 제도의 위치. 역사비평, 1997년 봄호.
- 원종관 (2007).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 이승억 (2001). 한국 공공분야 '기록보유(Recordkeeping)' 체제 전망: '기록물분류기준표의'의 제도적 의의와 특성. 기록학연구, 4.
- Cunningham, Adrian (2002). 호주의 공공기록 관리 전략: 동적 기술. 이승억 역. 『기록보존』, 15.
- Jenkinson, Hilary (1937).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정부기록보존소 옮김. (2003). 기록관리편람. 대전: 정부기록보존소.
- Schellenberg, Theodore R. (1956). Modern Archives: Principles and Techniques. 이원영 옮김. (2002). 현대 기록학개론. 서울: 진리탐구.
- Schellenberg, Theodore R. (1956) The Appraisal of Modern Public Records. 오향녕 옮김. (2005). 현대 공공기록의 평가. 기록학의 평가론. 서울: 진리탐구.
- Angel, Herbe (1968). Archival Janus: The Records Center. American Archivist, 31(1).
- Atherton, Jay (1985~1986). From Life Cycle to Continuum: Some Thoughts on the Records Management-Archives Relationship. Archivaria, 21.
- Bailey, Catherine (1989~1990). Archival Theory and Electronic Records. Archivaria, 29.
- Brooks, Philip C. (1940). The Selection of Records for Preservation. American Archivist, 3(4).
- Brooks, Philip C. (1948). Archival Procedures for Planned Records Retirement. American Archivist, 11(4).
- Brothman, Brien (2001). The Past that Archives Keep: Memory, History, and the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Archivaria, 51.
- Brown, Gerald (1971). The Archivist and the Records Manager: A Records Manager's Viewpoint. Records Management Quarterly, 5(January).
- Cook, Terry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 Cook, Terry (2000). Beyond the Screen: The Records Continuum and Archival Cultural Heritage.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Society of Archivists Conference. <http://www.mybestdocs.com/cook-t-beyondthescreen-000818.htm>
- Cuningham, Adrian (2005). Archival Institution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McKemmish, Sue, Piggott, Michael, Reed, Barbara, Upward, Frank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ersity.
- Dingwall, Glenn (2010). Life Cycle and Continuum: A View of Recordkeeping Models from the Postwar Era.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Eastwood, Terry and MacNeil, Heather eds.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 Dollar, Charles M. (1993).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in the Information Age. *Archivaria*, 36.
- Evans, Frank B. (1967).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Variations on a Theme. *American Archivist*, 30(1).
- Flynn, Sarah J. A. (2001). The Records Continuum Model in Context and Its Implications for Archival Pract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2(1).
- Gracy II, David B. (1987). Is There a Future in the Use of Archives?. *Archivaria*, 24.
- Hammit, J. J. (1965). Government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ment. *American Archivist*, 28(2).
- Hoke, Gordon E. J. (2011). Records Life Cycle: A Cradle-to-Grave Metaphor. *Information Management Journal*, 45(5).
- Holmes, Oliver W. (1949). The National Archives At a Turn in the Road. *American Archivist*, 12(3).
- Krauskopf, Robert W. (1958). The Hoover Commission and Federal Recordkeeping. *American Archivist*, 21(4).
- Maclean, Ian (1956). Trends in Organising Modern Public Records with Special Reference to Classification Needs. *Archives & Manuscripts*, 1(3).
- Maclean, Ian (1959). Australian Experience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merican Archivist*, 22(4).
- McEachreon, Peggy (2012). Records Life Cycle / Continuum Models. *Off The Record*(The Newsletter of the Archives Association of Ontario), 28(2).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03785657\\_Records\\_Life\\_CycleContinuum\\_Models](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03785657_Records_Life_CycleContinuum_Models)
- McKemmish, Sue (2001). Placing Records Continuum Theory and Practice. *Archival Science*, 1(4).

- McKemish, Sue (2005). *Traces: Document, Record, Archive, Archive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McKemish, Sue, Piggott, Michael, Reed, Barbara, Upward, Frank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ersity.
- McKemish, Sue (2017). *Recordkeeping in the Continuum: An Australian Tradition, Research in the Archival Multiverse*. Gilliland, Anne J., McKemish, Sue & Lau, Andrew J. eds. Clayton: Monash University Publishing.
- Piggott, Michael (1998). *The History of Australian Record-keeping: A Framework for Research*.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47(4).
- Piggott, Michael (2012). *Archives and Societal Provenance: Australian Essays*. Oxford: Chandos Publishing.
- Posner, Ernst (1940). *Some Aspects of Archival Developments Since the French Revolution*. *American Archivist*, 3(3).
- Reed, Babara (2005a). *Beyond Perceived Boundaries: Imagining the Potential of Pluralised Recordkeeping*. *Archives & Manuscripts*, 33(1).
- Reed, Babara (2005b). *Reading the Records Continuum: Interpretations and Explorations*. *Archives & Manuscripts*, 33(1).
- Scott, Peter J. (1966). *The Record Group Concept: A Case for Abandonment*. *American Archivist*, 29(4).
- Stoler, Ann Laura (2002). *Colonial Archives and the Arts of Governance*. *Archival Science*, 2(1-2).
- Stuckey, Steve (1994). *Keepers of the Fame? The Custodial Role of Australian Archives —Its History and Its Future*. *The Records Continuum: Ian Maclean and Australian Archives First Fifty Years*. McKemish, Sue, Piggott, Michael eds. Clayton, Vic.: Ancora in association with Australian Archives.
- TheDataVault (2011). *Records Life Cycle Renewed*. <https://thedatavault.com/records-life-cycle-renewed/>
- Upward, Frank (1994). *In Search of the Continuum: Ian Maclean's 'Australian Experience' Essays on Recordkeeping*. [https://bridges.monash.edu/articles/In\\_search\\_of\\_the\\_continuum\\_Ian\\_Maclean\\_s\\_Australian\\_Experience\\_Essays\\_on\\_Recordkeeping/4060014](https://bridges.monash.edu/articles/In_search_of_the_continuum_Ian_Maclean_s_Australian_Experience_Essays_on_Recordkeeping/4060014)
- Upward, Frank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 Part One: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https://bridges.monash.edu/articles/Structuring\\_the\\_records\\_continuum\\_-\\_part\\_one\\_postcustodial\\_principles\\_and\\_properties/4037445/1](https://bridges.monash.edu/articles/Structuring_the_records_continuum_-_part_one_postcustodial_principles_and_properties/4037445/1)

- Upward, Frank (2000). Modelling the Continuum as Paradigm Shift in Recordkeeping and Archiving Processes, and Beyond - A Personal Reflection. *Records Management Journal*, 10(3).
- Vincent, Carl (1976~1977). The Record Group: A Concept in Evolution. *Archivaria*, 3.
- Wagland, Mark & Kelly, Russell (1994). The Series System: A Revolution in Archival Control. *The Records Continuum: Ian Maclean and Australian Archives First Fifty Years*. McKemmish, Sue, Piggott, Michael eds. Clayton, Vic.: Ancora in association with Australian Archives.
- Yusof, Zawiyah M. & Chell, Robert W. (2000). The Records Life Cycle: An Inadequate Concept for Technology-generated Records. *Information Development*, 16(3).